

네일 '호랑이 발톱' 매섭네...외인 원투펀치 기대감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일본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제임스 네일이 '호랑이 발톱'을 드러냈다.

네일이 2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첫 실전을 소화했다.

이날 선발로 나온 네일은 2이닝(29구) 1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최고 구속은 149km를 찍었고 투심(12개·145~149km), 커터(7개·140~144km), 스위퍼(6개·133~138km), 체인지업(4개·138~142km) 등을 구사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수비 도움을 받았다. 롯데 운동회와의 승부에서 중견수 방항으로 큰 타구가 나왔지만 김호영이 좋은 수비로 공을 낚아채면서 네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이어 김민성의 타구가 높게 바운드 됐고 3루수 정해원이 이를 놓치면서 주자가 나갔지만, 추가 진루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네일은 전준우와 한동희를 연달아 삼진으로 처리하고 1회를 끝냈다.

2회 선두타자 고승민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만든 네일은 유감남은

롯데와 연습경기서 2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 "다음 등판선 투구습관 점검"...윤도현 솔로포 KIA 3-0 첫 승

3루 땅볼로 잡았다. 이학주에게 우중간을 가르느 2루타는 맞았지만 정훈의 타구가 유격수 클러브로 빨려들어가면서 실점 없이 첫 등판이 끝났다.

전날 야쿠르트 스왈로스를 상대로 월 크로우와 첫 등판을 잘 소화한 데 이어 네일까지 위력투를 보여주면서 KIA의 표정은 밝아졌다.

등판이 끝난 뒤 네일의 표정도 밝았다.

네일은 "첫 경기를 잘한 것 같다. 팀원들과 같이 하는 첫 경기였는데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인데 직접 보니까 놀랐다. 야수들을 믿고 더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첫 등판을 이야기했다.

라이브 피칭 당시 매서운 스위퍼를 던지며 동료들을 놀라게 했던 그는 자신의 스위퍼에 대해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나 그전에 있던 팀들이 커브나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에게 스위퍼를 던져보라고 조언한다. 지난해부터 던지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잘 되고 있고 편안한 상태로 던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직접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좋은 출발을 한 그는 다음 등판에서는 상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있게 '투구습관'을 신경 쓸 계획이다.

네일은 "공을 던질 때 공을 숨기는 부분, 어떤 구종을 던져도 최대한 같은 자세에서 공이 나올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네일로 문을 연 경기는 마무리 정해영이 종료했다.

이날 2회 2사에서 김호영-박민-김태군의 연속 안타로 롯데 선발 박세웅을 상대로 선취점을 만든 KIA는 3회 2사에서 터진 윤도현의 솔로포 등을 더해 3-0으로 앞선 상황에서 9회 마지막 수비를 맞았다.

연습경기 첫 경기에 나선 정해영은 탈삼진 하나 더한 삼자범퇴로 9회를 막고 팀의 승리를 지켰다. KT와 야쿠르트를 상대로 연패를 했던 KIA의 캠프 첫 승리다.

정해영은 "코치님이 올라갈 때 초구부터 전력으로 던져라고 하셨다. 그것만 지켜주라고 하셔서 초구부터 전력으로 던졌다"며 "상황이 타이트하니까 더 집중해서 던지라는 의미인 것 같다. 집중하면 공도 더 세게 던질 수 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 좋아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2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윤도현이 2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우월솔로포를 날리고 있다.

홈런포 윤도현, 돈복 터졌다

연습경기 '2호포' 등 멀티히트...MVP 상급에 선배 김태군의 '특별상급'까지

윤도현의 캠프 2호포가 터졌고, 돈복도 같이 터졌다.

KIA 타이거즈의 윤도현이 2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홈런 타자가 됐다. 지난 25일 캠프 첫 연습경기였던 KT전에서 손맛을 봤던 윤도현의 2호 홈런이자, 팀의 두 번째 홈런.

윤도현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에서 박세웅의 초구 146km 직구를 공략해 우월 솔로포를 만들었다. KT전서 당겨서 홈런을 만들었던 윤도현은 이번에는 밀어서 담장을 넘기면 남다른 타격 실력을 과시했다.

윤도현은 이날 8회 4번째 타석에서는 3루타로 기록하면서 멀티히트를 장식했다.

3-0 승리로 경기가 끝난 후 윤도현은 MVP가 됐다. 미팅이 끝난 뒤 코칭스태프가 3명의 MVP 선

정을 놓고 긴 시간 회의를 했지만 윤도현은 이견 없이 MVP였다.

수훈선수가 돼 상급을 받은 그는 또 '특별 상급'도 챙겼다.

윤도현은 전날 '베테랑' 포수 김태군과 내기를 했다.

김태군이 "집중해서 경기해야 한다. 오늘 안타 3개 치면 1만엔을 용돈으로 주겠다. 2개 치면 5000엔, 대신 하나만 치면 내가 나한테 5000엔을 줘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첫 경기에서 홈런 포함 4안타 활약을 한 후배가 꾸준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배 나름의 응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도현은 무안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윤도현이 김태군에게 '별급'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선배는 후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윤도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8일 내기 조건으로 안타 개수도 2개로 줄여줬다.

첫 타석에서 잘 맞은 타구가 1루수 클러브로 빨려 들어가면서 탄식을 했던 윤도현은 두 번째 타석에서 보란 듯이 우측 담장을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3루타로 약속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후배의 활약을 흐트라게 지켜본 김태군은 "홈런 치자마자 도현이가 나를 찾더라(웃음). 안타를 못 쳤더라도 상급을 줄 생각이었다"고 윤도현의 '한 방'을 기뻐했다.

"속소 돌아가면 바로 선배님 방으로 가겠다"며 웃은 윤도현은 "뒤에 타이밍을 놓고 오른쪽으로 치려고 생각했다. 생각대로 됐다. 상대가 직구 위주로 승부할 것 같아서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쳤다"고 상급을 부른 홈런을 이야기했다.

/wool@kwangju.co.kr

"KIA 선수단 환영...꼭 우승하세요"

오키나와현 킨 지역 관계자, 경기장 찾아 격려

일본 오키나와현 킨을 찾은 '호랑이 군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28일 KIA 타이거즈의 2차 캠프지인 오키나와 킨구장에 손님들이 방문했다. KIA가 캠프지로 선택한 킨 지역 관계자들이 지역 특산물 등을 가득 안고 경기장을 찾았다.

KIA와 킨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이곳에서 스프링캠프가 진행된 뒤 KIA는 매년 킨을 무대로 새 시즌을 준비했다.

하지만 맷 월리엄스 감독 체제로 꾸려진 2020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캠프가 진행됐고, 이후 코로나팬데믹으로 국내에 발이 묶였다.

지난해 해외 캠프가 재개되면서 KIA는 미국 애리조나에 이어 오키나와를 찾아 인연을 다시 맺었다. 지난 11월 마무리캠프도 킨구장에서 진행했다.

킨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나카마 하지메 총장은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넨 뒤 "킨 마을까지 먼 길 오주셔서 감사하다.

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환영한다. 마무리캠프에 이어 스프링캠프도 우리 마을에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작년에 백스크린을 업그레이드했고, 실내 연습장을 건설했다. 올 시즌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결심 있는 캠프가 되면 기쁠 것 같다. 이범호 감독 지휘 아래 2017년 이후 우승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고 KIA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에게 뭉툭발을 전달한 킨 관계자들은 지역 특산물도 선물하면서 KIA 선수단을 반겼다.

이에 이범호 감독은 "KIA 타이거즈를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촘촘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킨구장의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올 시즌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수들과 우승에 도전해서 가을 캠프에는 우승기를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2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환영식에서 이범호 감독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승 도전' 광주FC, '우승 후보' 서울 잡는다

내달 2일 광주서 K리그1 개막전... '린가드 효과' 티켓 매진

'우승'을 향한 광주FC의 도전이 시작된다. 광주가 3월 2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라운드 개막전을 치른다.

K리그1으로 복귀했던 지난 시즌 광주는 3위에 자리하면서 '돌풍의 팀'이 됐다.

광주는 올 시즌 'NEW GENERA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빅클럽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다. 우승이라는 목표도 내걸었다.

서울과의 개막전은 더 큰 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광주의 시험대가 된다.

광주는 지난 시즌 이정호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으로 3위까지 도약했다. 과학적인 분석과 광주만의 공격 전술을 활용한 강팀들과의 승부에서 밀리지 않았다.

새 시즌에 맞춰 광주는 '오프 더 볼'을 키워드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했다.

지난 시즌 '압박'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끌어냈던

광주는 올 시즌에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강하게 우승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돌풍 주역인 몇몇 선수가 이적했지만 광주는 새 얼굴을 더해 전력 재정비를 했다.

센터백 티모와 아론의 자리는 젊고 빠른 센터백 자원이 조성권과 변준수 그리고 호주 청소년 대표 출신 포포비치로 채웠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의 빈자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온 최경록과 성남FC에서 가세한 박태준으로 메운다. 팀의 공격 전개를 위해 강원FC로부터 풀백 김진호도 영입했다.

/wool@kwangju.co.kr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정호 감독의 기대감도 크다.

지난 시즌 팀 득점 1위를 차지한 아사니와 완벽하게 팀 전술에 녹아든 베카가 든든하다. 또 브라질 출신 가브리엘과 빅틀이 새로 합류해 화력을 더했다.

정호연, 이희준, 임지성, 두현석 등이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광주 유스' 명맥을 잇기 위한 '루키'들의 도전이 이뤄진다. 광주 유스 출신 문민서와 안혁주가 프로 데뷔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전력 강화가 있었다. 마철준 수비 코치와 전력 분석관 등을 증원해 선수들의 경기 분석 능력과 전략 실행력을 강화했다.

이정호 감독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개막전 승리

전략으로 '상식 밖의 생각'을 언급했다. 광주다운 플레이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서울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서울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고, 올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제시 린가드를 영입해 화제의 팀이 됐다.

이라크 국가대표 수비수 레빈 솔라카도 불러들인 서울은 포항 스틸러스를 이겼었던 김기동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단숨에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시즌 '기싸움'을 벌였던 두 팀의 개막전, '린가드' 효과까지 더해 개막전 티켓이 오픈 2분 30초 만에 매진됐다. 광주가 만원 관중 앞에서 '우승후보' 서울을 꺾고 또 한 번 광주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